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 및 인터넷 중독

이 숙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남 윤 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최근에 인터넷 중독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 할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활발히 제기되면서, 점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실태가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밝혀봄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총 223명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성과 학년에 따라 인터넷 이용 및 중독성과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과 기능 및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할 하기 위하여 χ^2 검증 및 t-test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이용 변수와 친구관계 변수(일반적 특성과 기능 및 만족도)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이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으로서 Duncan과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부분 청소년들은 단짝 친구나 집단 친구를 가지고 있었고, 비교적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거의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며, 하루에 1-2시간, 밤 10시-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인터넷 사용 유형은 게임 오락형, 대인관계추구형, 정보탐색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54.3%가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의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성과 학년에 따라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 변수의 차이는 나타났지만 인터넷 중독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이용 변수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먼저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 친구 변수보다 통신 친구 변수가 인터넷 중독에 차이를 나타냈다. 즉, 통신상의 친구 수, 통신상의 이성 친구 수, 인터넷 친구에 대한 만족, 스트레스를 해소 할 때 만나는 친구, 기능(도움, 갈등), 만족도에 따라 중독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변수 중에서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집단에서, 한번 인터넷을 시작하면 오래 걸리는 집단, 인터넷 평균 사용 시간이 많은 집단,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집단, 인터넷에서 주로 게임을 즐기는 집단이 인터넷 중독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즉,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통신상의 친구관계에 대한 변인들과 만족감, 인터넷 사용 시간, 이용빈도, 이용 유형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청소년이 인터넷에 몰입하기보다는 원만한 친구관계를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실생활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